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25년 제14호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2025.04.1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멕시코, 인도

- 멕시코에서 A(H5N1)형 인체감염 첫 사례 및 인도에서 두 번째 사례 사망 보고
- 멕시코에서 3세 여아가 AI A(H5N1)형 최초 감염 후 사망 및 인도 내 두 번째 발생사례로 생닭고기 섭취 후 감염된 2세 여아 사망을 보고함
-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근거 없음 등을 사유로 WHO 등은 일반인 위험도 '낮음'을 유지 중이나, 멕시코 및 인도의 확인되지 않은 동물 내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지속 예정임

홍역, 유럽지역

- 유럽지역 지속 발생 중이나 1월 대비 23.4% 감소, 전년 동기간 대비 81.2% 감소
- 최근 1년 EU/EEA 30개국에서 총 28,791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44.5%가 5세 미만, 27.4%가 15세 이상으로 확인됨
- ECDC는 현재 유럽지역 발생이 감소 중이나 면역 격차를 해소하고 95%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유지하고자 아동의 1, 2차 접종 일정 및 15세 이상과 젊은 성인 연령대의 면역 주척 프로그램을 통한 백신 접종 확인을 권고함

엠폭스, 전 세계

- 최근 6주 동안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Clade 1b 확진자 보고
- 최근 6주(2.3.~3.16.)동안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Clade 1b 확진자를 보고(1,504명)하였으며, DR공고는 최근 들어 확진자 감소 경향을 보이거나 검사역량 미흡 및 보고 지연 가능성 고려 필요함
- 브라질, 콩고공화국, 탄자니아에서 Clade 1b 확진자 발생하여 전 세계 총 27개국에서 지역사회 전파 및 유입 사례 등을 보고함
- 엠폭스 유행 국가를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EU/EEA 국민 위험도를 유행 지역 사람과 밀접 접촉 시 '중간', 미 접촉 시 '낮음'으로 평가함(3.14.)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러시아

- 러시아, 원인불명호흡기질환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확인
-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인 SHOT(텔레그램 채널)에서 피가 섞인 기침, 고열 및 쇠약을 동반한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원인불명 호흡기 질환이 유행한다는 기사가 게재(3.29.)된 바 있으며, Rospotrebnadzor(러시아 소비자 보호 및 복지 감독 연방 기관)는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확인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목 차

□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멕시코, 인도)	2
2. 홍역 (유럽)	3
3. 엠폭스 (전 세계)	6
4.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러시아)	8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9
---------------------------	---

※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간행물 ‘주간 건강과 질병’ (<https://www.phwr.or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2025.3.16.~3.22.)

법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멕시코, 인도] 유아 감염 사례 발생 및 사망 보고

발생 상황

- '25년 4월 들어 2명의 유아가 각각 멕시코와 인도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확진 후 치료 중 모두 사망함
 - 멕시코에서는 3세 여아가 AI A(H5N1)형 최초 감염 후 사망하였고, 인도에서는 국가 내 두 번째 감염 사례로 2세 여아가 사망함
 - 멕시코 환자는 두랑고주 거주자로 호흡기 합병증을 동반하여 중증 상태로 입원 치료 중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함(4.8.)
 - 멕시코 보건부는 환자의 접촉자 38명을 조사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도함
 - 인도*에서 발생한 환자는 인도의 남동부 지역 안드라-프라데쉬주 거주자로서 생닭고기를 섭취한 후 이틀 뒤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였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3.16.)
- * '21.7월 인도 첫 H5N1 인체감염(11세 소년, 사망, 조류접촉력 불명) 보고 후 약 4년만에 발생



< '24'25 멕시코 및 인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류 유행 발생 현황(세계동물보건기구, '25.4.7. 기준) >

상황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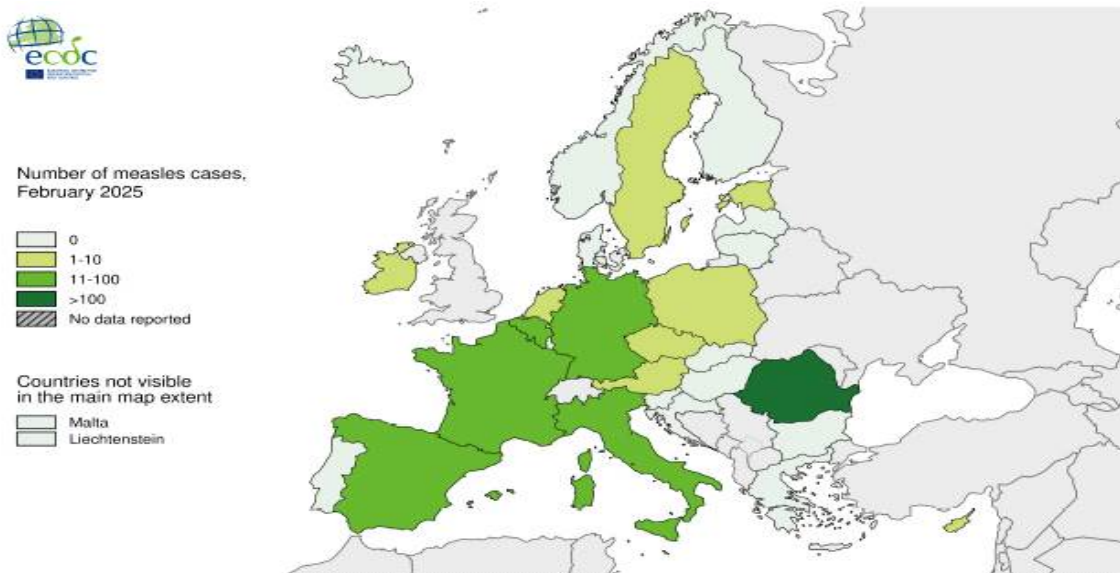
- 멕시코에서 첫 인체감염 사례, 인도에서 두 번째 사례가 발생했으나,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근거는 현재까지 없음
- WHO 등 국제기구는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인에 대한 위험도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 중임
 - 다만, 멕시코 및 인도 내 확인되지 않은 동물감염 및 지역 유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함

※ 자료 출처 : The Ministry of Health reports the detection of the first human case of avian influenza A(H5N1) (멕시코보건부, '25.4.4.8)
India reports its second human bird flu death in Andhra Pradesh (인도 언론보도, '2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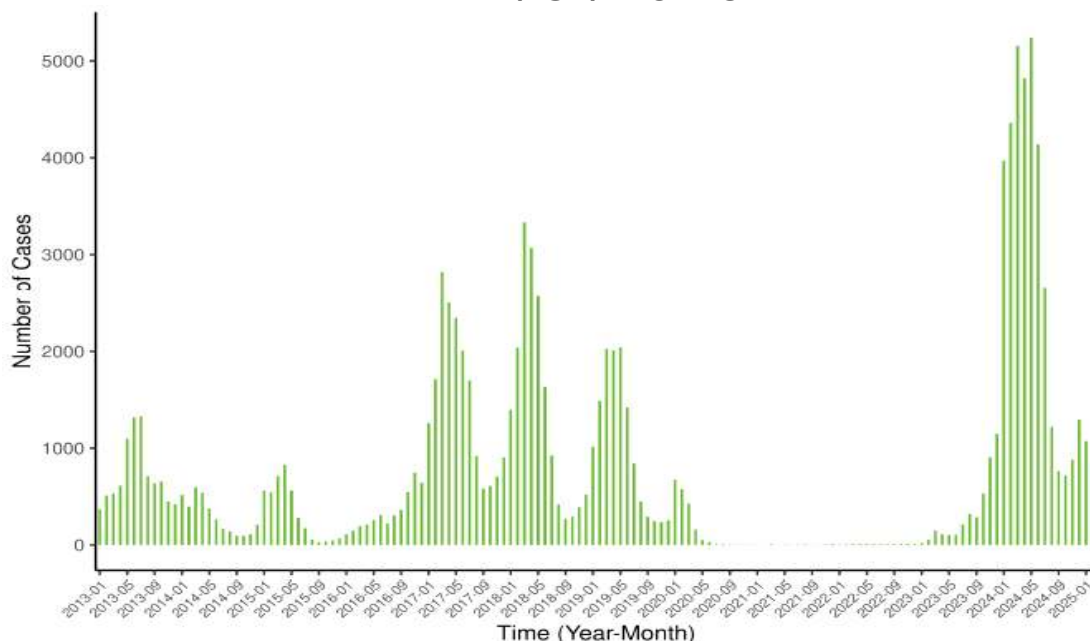
법정 [홍역/유럽] '25년 1월 대비 23.4% 감소, 전년 동기간 대비 81.2% 감소

발생 상황

-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는 유럽 내 '25년 2월 홍역 발생 현황과 함께 '24년 3월~'25년 2월까지의 홍역 발생 현황을 보고함
- '25년 2월 유럽지역 14개국에서 총 821명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23.4% 감소 ('25년 1월 17개국에서 1,072명 발생) 및 전년 동기간 대비 81.2% 감소('24년 2월 4,363명 발생)한 수치임
- * (발생국가) 루마니아(527명, 64.2%), 프랑스(79명, 9.6%), 스페인(75명, 9.1%) 이탈리아(66명,8.0%), 독일(18명, 2.2%)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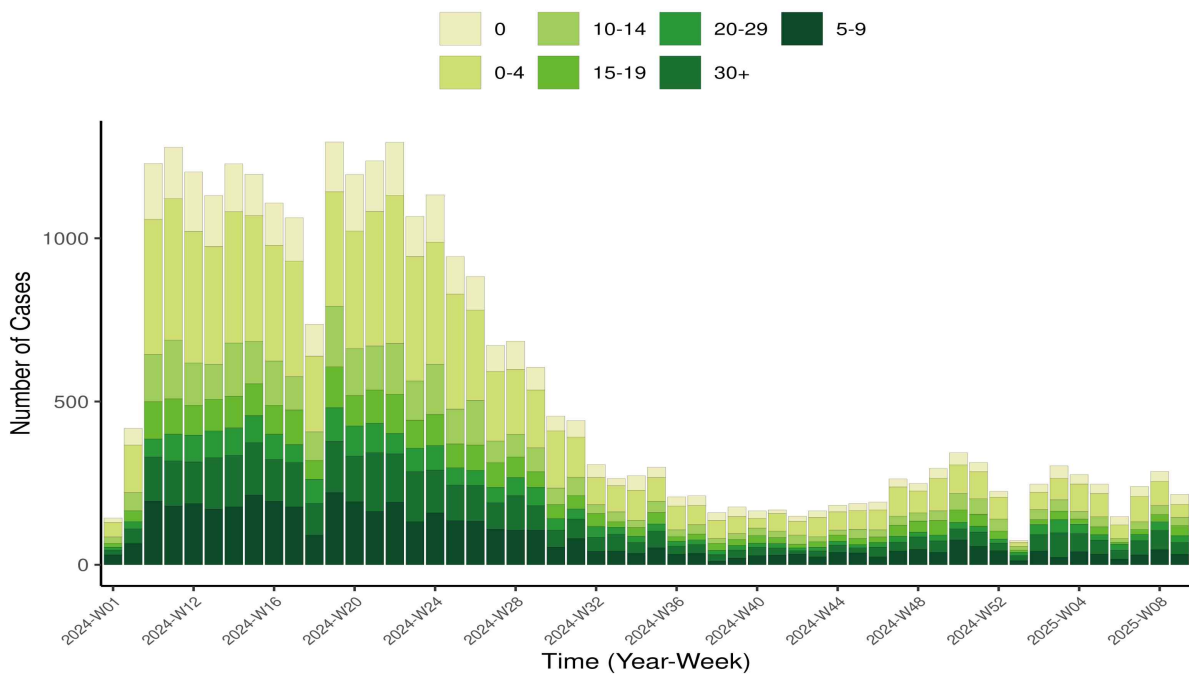


< '25년 2월 EU/EEA 지역 홍역 발생 현황(ECDC, '25.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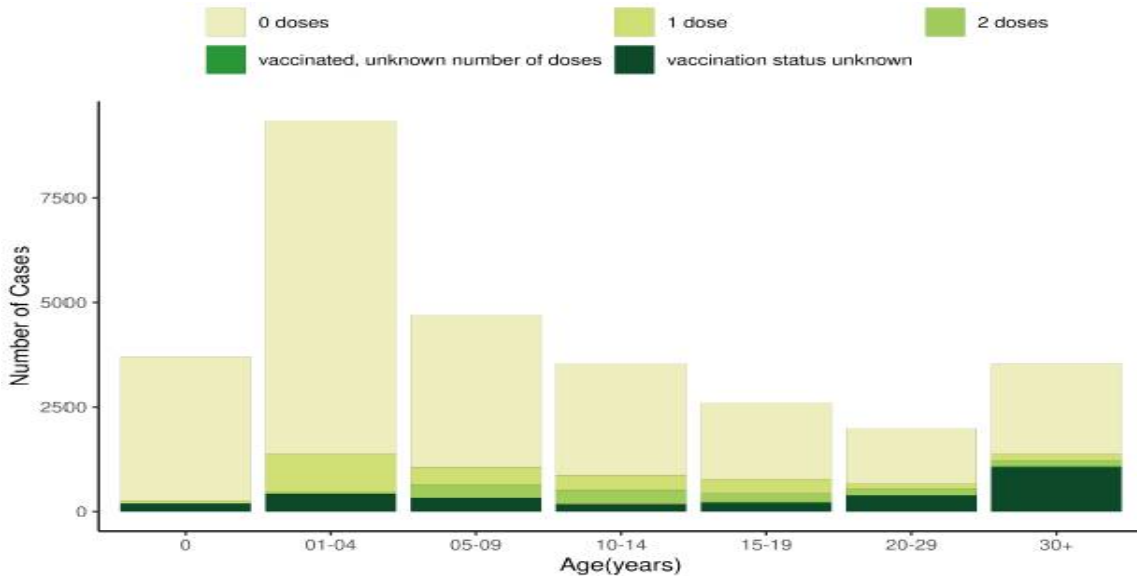
< '13~'25년 EU/EEA 지역 국가 월별 홍역 발생 현황(ECDC, '25.4.2.) >

- 최근 1년('24년 3월~'25년 2월) EU/EEA 30개국에서 총 28,791명이 보고 되었으며, 이 중 44.5%(12,816명)가 5세 미만, 27.4%(7,880명)가 15세 이상으로 확인됨
 - * 유럽 내 영국 등 EU/EEA 일부 미가입 국가 집계 제외
 - * (발생국가) 루마니아(24,215명, 84.1%), 이탈리아(1,064명, 3.7%), 독일(591명, 2.1%), 프랑스(572명, 2.0%), 벨기에(556명, 1.9%)등 순
- 감염경로 분석 결과, 총 환자의 87.0%(25,054명)가 감염경로 미상이었으며, 이외에도 지역사회 감염 9.9%(2,851명), 해외유입 2.2%(624명), 해외유입 관련 전파 0.9%(262명)로 확인됨



< '24년 3월~'25년 2월 EU/EEA 지역 연령별 홍역 발생 현황(ECDC, '25.4.2.) >

- 최근 1년('24년 3월~'25년 2월)동안 백신 접종력이 확인된 총 26,669명 중 미접종 86.2%, 불완전 접종 및 접종 차수 미확인이 9.1%로 확인됨
 - 또한 주요 접종군인 1-4세에서 보고된 9,346건 중 85.3%는 백신 미접종, 14.3%는 불완전 접종 및 접종 차수 미확인으로 보고됨
 - * '23년 EU/EEA 지역 홍역 백신 접종률: 1차 접종 93.9%, 2차 접종 88.8%
 - * 2차 접종률 95% 이상 국가: 헝가리,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예방접종률(1차/2차) 낮은 국가: 루마니아(78%/62%), 키프로스(82%/80%), 리투아니아(87%/86%)



< '24년 3월~'25년 2월 EU/EEA 지역 연령별 홍역 백신 접종력 현황(ECDC, '25.4.2.) >

☐ 상황 평가

- '25년 1월 대비 발생 상황 및 최근 1년 발생이 급감하였으나, ECDC는 국가간 면역 격차를 해소하고 95% 이상 백신 접종률을 유지하고자 ①아동의 1, 2차 백신 접종 일정 준수, ②15세 이상과 젊은 성인 연령대의 면역 추적 프로그램을 통한 백신 접종력 확인을 권고함

※ 자료 출처 : Monthly measles and rubella monitoring report (ECDC, '25.4.2.)
 Monthly measles and rubella monitoring report (ECDC, '25.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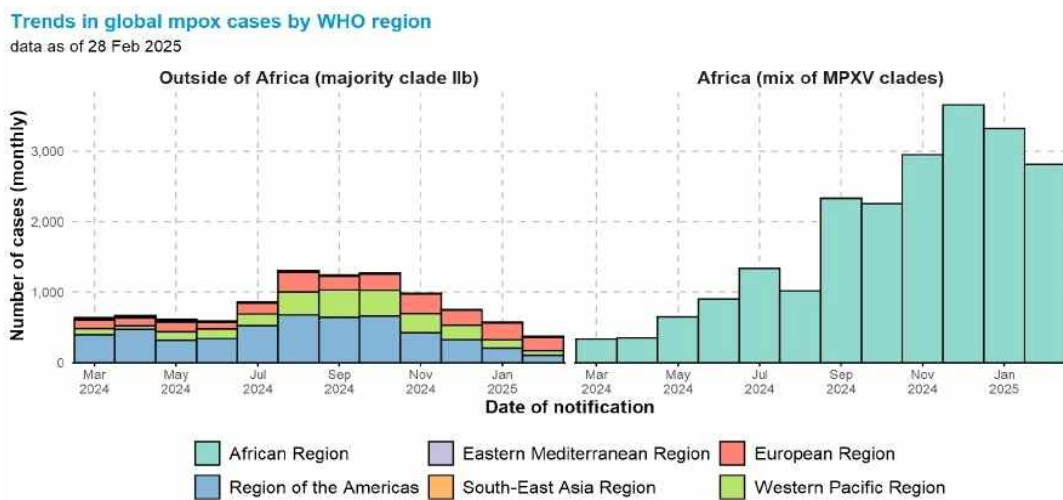
법정 [엠펙스/전 세계] 최근 6주 동안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Clade 1b 확진자 보고
발생 상황

- '22년~'25년 2월까지 131개국에서 총 133,797명 발생, 사망은 304명(치명률 0.2%) 보고됨
 - '25년 2월 한 달간 3,191명 발생으로 전월 대비 18.2%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아프리카(88.2%), 유럽(6.0%), 미주지역(3.2%) 순이었음
 - * (WHO 지역별) 아프리카 2,815명(88.2%), 유럽 191명(6.0%), 미주 103명(3.2%), 서태평양 69명(2.2%), 동남아시아 7명(0.2%), 동지중해 6명(0.2%)
- 엠펙스 Clade 1b는 '24년 이후 아프리카 12개국, 아프리카 외 15개국에서 발생 또는 유입 사례가 보고됨
 - DR콩고에서는 '24년 9월 이후 Clade 1a, 1b가 동시 유행 중이며, 최근 6주간 (2.3~3.16.) 1,134명 확진 보고, 사망은 없었음
 - '24년 전체 확진자 14,806명(사망 43명), '25년 3월까지 누적 총 3,207명(사망 4명) 보고함
 - 우간다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중 가장 많은 발생으로 '24년 7월 첫 발생 이후 증가 추세였고 '25년 3월 16일까지 누적 총 4,141명(사망 31명, 치명률 0.7%) 발생함
 - * 최근 6주간에는 총 1,504명 확진 보고
 - 부룬디에서는 '24년 7월 첫 발생, 10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한 추세를 보였고, '25년 3월까지 3,645명 확진(사망 1명, 치명률 0.03%) 보고함
 - 아프리카 외 지역(영국, 독일, 중국, 태국, 미국 등)에서는 총 51명 감염 확인되었고, 모두 유입 사례 및 가정 내 전파로 확인하였음
 - * 영국(11명), 독일(8명), 중국(7명), 벨기에(5명), 태국(4명), 미국(4명), 카타르(3명), 프랑스(2명), 브라질(1명), 캐나다(1명), 인도(1명), 오만(1명), 파키스탄(1명), 스웨덴(1명), 아랍에미리트(1명)
- 엠펙스 Clade 1a는 '22년 이후 아프리카 5개국(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DR콩고, 수단)에서 발생하였고, DR콩고가 주된 발생 국가이며, '23년부터 주변국으로 산발적 감염 전파 지속 중임
 - DR콩고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어린이 감염 비율이 높고, 콩고공화국은 대부분 성인 감염 사례가 많음
 -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는 중국, 아일랜드에서 DR콩고 해외여행을 통한 유입 사례가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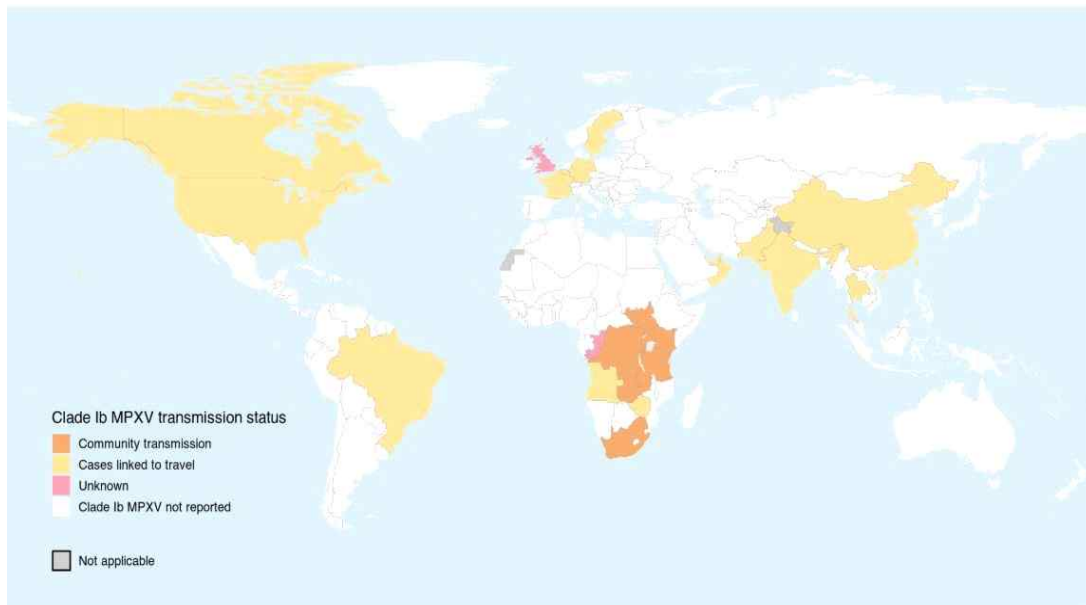
상황 평가

- WHO는 2024년 8월 14일 Clade 1b 유행으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 이후 긴급위원회('24.11.22., '25.2.25.)를 통해 DR콩고 내 정세 불안, 미국의 재정지원 동결, 여행 관련 지속적 유입 사례 등을 고려해 PHEIC 유지가 결정되었음

- 최근 우간다에서 Clade 1b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DR콩고 확진자 수는 감소 중이나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수치일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콩고공화국은 DR콩고 외 국가 중 Clade 1a와 1b 동시 유행이 확인된 첫 사례이며, 아일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중국에서 Clade 1a 유입 사례가 추가로 보고됨
- 아프리카 내 엠폭스 유행이 지속 중이며, ECDC는 엠폭스 유행 국가를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EU/EEA 국민 위험도를 유행 지역 사람과 밀접 접촉 시 '중간', 미 접촉 시 '낮음'으로 평가함(3.14.)



< 최근 12개월('24.3월~'25.2월) 전 세계 엠폭스 발생 현황(WHO, 2.28. 기준) >



< 전 세계 클레이드 1b 엠폭스 발생 지역 현황(WHO, 3.30. 기준) >

※ 자료 출처 : Mpox Multi-country external situation report no.49 (WHO, '25.3.28.)
Global Mpox Trends (WHO, '25.4.4.)

법정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러시아] 원인불명 호흡기 질환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확인
발생 상황

- 러시아 모스크바주(Moscow region)에서 유행하는 원인불명 호흡기 질환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확인되었다고 러시아 소비자 보호 및 복지 감독 연방 기관(Rospotrebnadzor)에서 발표함(현지언론보도 TASS, 4.4.)
 - 앞서, 러시아 소셜네트워크인 SHOT(텔레그램 채널)에서 피가 섞인 기침, 고열 및 쇠약을 동반한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원인불명 호흡기질환이 유행한다는 기사가 게재(3.29.)된 바 있음
 - 러시아 연방정부(Rospotrebnadzor)는 해당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증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힘
 - 독감,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COVID-19 및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의 역학적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함
- ※ COVID-19 사례 20% 감소, 입원환자 수 8.6% 감소('25.3.24.~30.)

상황 평가

- WHO 국가사무소 관계자는 발생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Rospotrebnadzor에 정보 요청하였으며, 원인불명질환 사례 5명의 실험실 검사상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인되었음을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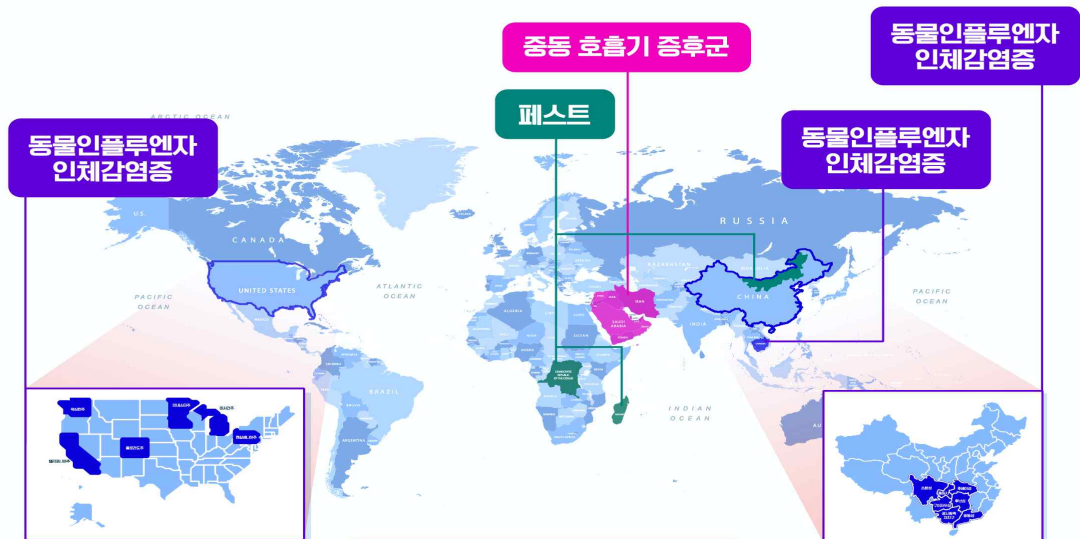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Head of WHO Office in Moscow: WHO denies emergence of a 'new infection' in Russia. (TASS, 4.4.), Bloody cough and weakness: reports of an 'unknown infection' not confirmed" (Ak Zhaik, 3.31.) Reports of a new 'bloody virus' are an information attack (Rambler, 3.31.)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2025.3.26 질병관리청

‘25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 | |
|----------------------|--|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이니아주)
중국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
| 중등 호흡기 증후군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 페스트 |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 ('25.4.1.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18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 (<https://www.kdca.go.kr> 접속 > 알람자료 > 공지사항)